朝鮮日報
夕刊 六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社說
西班牙는어데로가나?
아룬市陷落과

一

過去四、五日을두고 叛亂軍과 政府軍사이에 一進一退 必死를 期하야 攻防戰을 演出하던 佛西國境의 要衝都市 이룬市는 四日早朝에 政府軍의 崩壞로 마츰내 叛軍手中에 드러가고마럿다。그리고 難攻不落의 이룬市陷落에 成功한 叛軍은 이 氣勢에 乘하야 南方政府軍의 最後의 牙城 산·세바스티안市를 向하야 進擊中이라는데 自信을 일흔 政府軍은 流血의 慘劇을 避하기 爲하야 同市를 無條件으로 叛軍에게 讓渡한다는 報道가잇는한便 首都 마드리드의 陷落도 時間問題로 傳하고잇스니 虛報가 橫行하는 戰時일뿐아니라 원체 遼距離에 隔在한 西班牙의 일이라 此等 報道를 全的으로 信憑하기는 어렵다 하드래도 여러가지 情報를 綜合하여볼때에 昨今 政府軍이 크게 不利한것만은 事實갓고 또 叛亂勃發以來 政府軍에 잇서서는 이것이 未曾有의 危機가되여잇는것도 事實인듯십다。

二

叛亂勃發當初에는 그勢力이 比較的微弱하던 叛軍이 그後에 漸次 그勢力이 增大된것은 叛軍이 目的하는 파쇼的政治機構와 그와 政體를 가티하는 獨伊兩國이 叛亂軍을 積極的으로 援助하여준데基因함은 勿論이다。勿論 西班牙現政府와 그主義思想에잇서 共通또는 接近되여잇는 佛蘇兩國國民이 西國人民戰線政權이 逢着한 大難局에對하야 마음으로 同情하고 若干의 金品까지 寄與한것은 事實인듯하나 獨伊兩國과가튼 軍事的積極援助는 敢히 생각도못하고잇다。그리하야 佛國은 歐洲政局의 險惡化를未然에防止코저 西班牙內亂不干涉案을 成立식히려고 過去 近二個月동안이나 애써왓스나 獨伊兩國은 여러가지 理由로 이것을 遷延식혀오며 叛軍을 援助하여 오다가 最近 叛軍이 勝利할듯한 氣味를보고 參加意思를 表明하고잇다。

三

本欄에서 屢次말한바와 가티 佛國의 不干涉案提議의 本意가 叛軍에 有利케하려는것이아니라 그와正對의 目的에잇슴것은 勿論이다。함에도 不拘하고 其實에잇서서는 佛國의 平和運動은 叛軍을 有利케하는 結果를 齎來하엿다。그리하야 大勢가西班牙政府軍乃至 佛國西人民戰線內閣에 不利한것을보게된 親佛的小協商諸國陣營에도 異狀이 생기게되엿다。卽 最近 羅馬尼亞國首相다다레스코氏가 親佛親蘇外交家로서 名聲이놉흔 티튜레스코外相을 逐出하고 內閣改造를 斷行한것은 國王카롤二世의 獨[illegible] 擴張하려는 意圖로 [illegible] 파쇼政治實現을 目標 [illegible]한것이 明白하며 이러한 [illegible] 西班牙內亂 [illegible] 그것이 [illegible]에 波 [illegible] 적지안할것도 容易히 推測할수잇다。[illegible] 勝利 하야

佛左翼勞働團體
西政府軍援助要請
要求에不應하면總罷業斷行
블룸內閣危機直面

블룸佛蘭西首相

【巴里五日發同盟】巴里金屬勞働者와 루바로아自動車 飛行機工場勞働者組合은 이룬陷落으로 西班牙人民戰線內閣이 重大危機에 當面한 事實에鑑하야 五日緊急會議를召集하고 對策에關하야 協議한結果 斷然블룸內閣의 不干涉政策을 揚棄하고 政府를 鞭撻하야 西班牙政府에 支援을與케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어 곳共產、社會兩黨共同委員을擧하야 블룸首相을 訪問하고 右主旨를 陳情케하기로되엇다 一方共產黨도 블룸政府가 西班牙人民戰線內閣을 支援치안는限 곳總罷業을 決行하겟고다 强硬한 意思表示를 行하얏다 政府는 事態의 重大性에 鑑하야 五日午後 르브랑大統領司會下에 國務會議를 開催하야 對策을 協議하기로 되엇는데 블룸內閣이 드듸어 中立政策을 放棄하고 西班牙政府를 支援하거나 또 總辭職하거나의重大政路에 逢着하게 되엇다고 보인다

佛閣議不干涉案堅持決定

【巴里五日發同盟】佛國政府는五日 블룸首相司會下에 閣議를 開會하고 現下 國際政局調整의 對策에 關하야 協議하엿다 特히 西班牙內亂不干涉案을 俎上에 올려노코 滿場一致 如左한 決定에 到達하얏다

▲軍備强化案

一、兵役年限延長은 經費關係上 이를 行하지안코 專혀 東部國境防備戰의强化와 國軍의 質的擴充을 行하고 特히 機械化車隊、航空部隊와 自動車隊를 擴充强化할것

◆內亂不干涉案

一、西班牙內亂에 對해서는 政府는 八月八日의 決定에 基하야 끗까지 內亂不干涉의 方針을 堅持할것

一、來八日 開催豫定인 倫敦不干涉調整委員會에 關해서는 倫敦駐箚콜방大使를 代表로 出席케하야 政府의 方針에 基하야 折衝케할것

閣議는 同時에 콜방大使에게 發할 訓令案을 決定하엿다

世界通史

丙子災變說이 衆說紛紜한 迷信인지는 몰라도 今年丙子는 新錦에 未曾有의 大災禍를 내리엇다。初夏의 大旱魃은 中部一帶에 만흔 被害를 남기고 이어 이온 雨災의 **三南地方大水災** 는 慘을 極하야 人命死傷 實로五千餘에 及하고 農作物、家屋破損其他의 損害는 一億圓內外를 算하고잇다。民間側의 救濟事業도 同胞의 赤誠으로 날로 進行되는中이며 當局의 臨時災害對策과 또한 恒久的對策도講究되고잇는中이라고 傳하거니와 우리는 一層 災害救濟에 積極努力하는同時에 苦難에 [illegible] 勇氣와 힘을 吹入하여야 할것이다。안으로 이러한데에 東亞의政局은 如何한가? 日蘇關係는 아직도 此少한 國境衝突은업섯고、滿蘇國間에는 外交折衝을 거듭한結果今秋에 再次 [illegible]委員會를 開催하야 國交를 調整케되엇다 하므로 危機를 傳하던 前者의 空氣보다는 자못 好轉되엿다할수잇다。다음日中關係는 아직도 諸懸案이 잇서 明朗한空氣가 보이지안코、西南問題解決을 契機로 北中에 中央化問題가 喧傳되어 다시 惡化의 兆候를 보이던차에 突然 **成都暴動事件** 이 勃發하야 依然 形勢가 惡化되엇다 事件의 經過는 이미 詳細히 報道되엇스니 이에 再言할 必要가 업스나 雙方의 調査에 依하야 相當한 責任者를 處罰하고 今後의 事件解決을 爲하야 外交交涉의 推移가 注目되는데 이미 松村參事官의 報告가 本省에 傳達되엇고、이에 伴한 陸海軍現地當局의 報告가 各其 一致되어 川越大使에 訓令하엿스니 交涉은 將次 開始될 것이다。如何든 成都事件이야말로 今後의 日中關係에 重大한 影響을 及할 大事件이라 아니할수업는同時에 交涉의 推移는 極히 注目된다。

엇더튼 歐洲의 情勢를보건대 **西班牙大動亂** 은勃發以來 五十餘日을 算하되 아직解決되지안흘뿐아니라 政府、叛亂兩軍의 勢力은 可謂 伯仲이라 將次 一進一退를 보일는지 豫斷을不許하거니와 그동안 人命死傷이 十五萬을 算하니 同族相殘의 慘劇은 言語에絶하는바 잇고 全國各地는 修羅場、殺戮、放火等으로 廢墟化하엿다고 傳하니 慘憺한 光景은 말할것도 업다。思想의 싸움이라 이러케도 戰慄할 무서운것일가? 이 叛亂에 對한 所謂 **對南不干涉案** 은佛國의 提唱以來 各國의 贊成을 어덧고、問題의 獨伊도 參加케되엇스나 다음 順序인 不干涉調整委員會設置案이 獨伊兩國의 反對로 進捗치못하고잇섯는데 어느듯 英佛의 努力으로 모다 參加케되엇스므로 不干涉近間 倫敦에 會合하야 不干涉具體案에 對한 討議를 하리라고 傳한다。그러나 이도 歐洲各國이 戰爭의 渦中에 捲入되는것을 回避할수는 잇슬지모르되 內亂終熄에는 얼마나 効果잇슬지 疑問이며 또 實際는 如何할지 또한 疑問이다。卽 一面으로 이러한 不干涉、乃至 平和工作을 籌備하고잇는 歐洲各國도 裏面으로는 이것을 契機로 左右兩翼의 國家群이 深刻한 陣營을 整備하고、모다 陣營擴充에 努力中이다。特히 人民戰線에 對抗코저 **獨伊攻防陣確立** 에 努力中인것은 注目할만하다。去月末의 獨宣傳相 꾀벨스氏의 訪伊는 그間의 消息을 傳하는것이어니와 [illegible]에 依한 赤軍의 增加는 [illegible] 兵役年限延長은 [illegible]이 되고、[illegible] 口實이 되어 各其 [illegible] 國軍의强化、軍備擴充에 狂奔하고잇는데 [illegible]을 企圖하야 波蘭과의 接近을 企圖하야 [illegible]에 크게되는 [illegible]을 代價으로

佛波共同作戰 을 企圖하고잇는것은 對獨包圍陣을 强化하려는것이 佛國의 工作이오 西班牙叛軍勝利를 期待코 對佛包圍陣을 强化하려는것이 獨逸의 心算이다。이동안에 또 羅馬尼亞內閣이 티튜레스코外相을 放逐하고 右翼으로 旋回하야 對佛 [illegible]에서 親獨에로 轉換하는同時에 小協商國陣營도 重大危機에 直面하게되엿스니 佛國의 苦悶을 加하고잇다。

寺內陸相끗까지
民有國營案固執

【東京電話同盟】電力統制强化國策에 關한 陸軍의 見解는 先般 廣谷軍務局長과 池尾日電社長과의사이에 對策이 表明되엇슴은 旣報인데 四相會議의 經過를 閣議에 上程할境遇에는 寺內陸相은 民有國營案을 根幹으로한 電力國策遂行에 對하야 國防的見地에서 積極的으로 遞信省案을 支持할 重要發言을 할 方針으로 이準備를 進行中인 模樣이다 그런데 民有國營案에 對한 業界政界一部의 反對意見에 關하야 陸軍은 그技術的根據에 자못 不滿을 품는同時에 그精神에 全面的 反對의 意向을表示하고잇다 卽 反對者中에는 國有國營案을 가르처 國家社會主義에서 出發하얏다고 稱하야 그主旨에 反對하고잇스나 이反對이데올로기는 現內閣의 使命으로 삼는 庶政一新 或은 施政改革의 根本精神에 背反하는것이다 陸軍으로서는 이 點에서도 反對論을 葬去할 必要가 잇다고하며 國有國營이아닌 他案인 民有國營案과가튼것은 全然 問題가 되지안흐며 幾餘의 案은 戰時 或은 戰時와同樣의 境遇에 考慮하기로하더라도 國有國營案同樣으로 問題가 되지안는다고 끗까지 民有國營案實現에 協力할 强硬態度를主張하고잇다

叛亂軍政府에서
正統政府로承認運動
國際聯盟에代表派遣

【쥬네브五日發同盟】西班牙叛亂軍은 最近 破竹의 勢로 北部戰線을 席捲하야 이情勢로서나가면 首都마드리드陷落도 不遠하리라고한다 叛軍政府는 이勢에乘하야 西班牙의 正統政府인것을 宣言하고 來十八日부터 開할 聯盟理事會와 總會에 代表를 派遣할 意向이라고 傳하며 特히 聯盟會議前에 首都攻略에 成功하면 事實上 西班牙全土를 支配하게되어 如斯한境遇에는 伊太利政府와 葡萄牙政府는 叛軍政府를 끗까지 支持할것으로보여 來理事會와 總會는 俄然 混亂을 惹起하게되엿다

오비에드在留
獨逸人自由退去

【伯林五日發同盟】西班牙近海警戒의 獨逸巡洋艦라이프치히號艦長은 西班牙政府에 對하야 오비에드에 殘留한 獨逸人退去를 交涉中이던바 五日午前에 至하야 交涉이 成立되어 西班牙政府는 右要求를 應諾하고 獨逸人의 自由退去를 許可하엿다 따라서 獨人避難民은 五日午後 기호港으로부터 獨逸汽船에 便乘하야 라이프치히號保護下에 本國으로 歸國하기로되엿다

新內閣出現에
叛軍、動向注目

【부르고스五日發同盟】叛軍政府는 마드리드內閣改造를 보고 마츰내 公然 叛軍의 捕虜를 大量虐殺할 證左라고 마드리드政府의 行動을 注目하고잇다

叛軍이룬市完全占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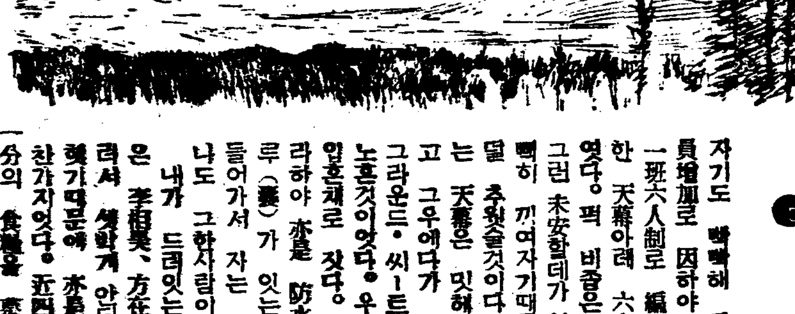
【앙데五日發同盟】政府軍의 이룬國際橋奪取의 逆襲은 正午에 至하야 完全히 叛軍의 손으로 擊退되어 이룬은 全혀 叛軍手中에 歸하게되엇다 이結果 이룬、산·세바스티안間의 交通은 叛軍에 依하야 遮斷되엇다

日曜氣配

◇株式=株價는 中心으로 選擇買氣가 擴大되어 底堅이나 目前의 手玉整理進行으로 氣配銳狀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鐘新 [illegible]

◇期米=好題氣로 實物이 만히 下押氣味이나 正米의 頑强으로 氣强하야 今後 漸次 當先의 鞘는 擴大될 模樣 氣配底强

白頭山探險記



通信을지고날든
傳書鳩의大橫厄
●徐椿

員用天幕은 全部 五人用으로서 各班에 하나씩이다。實地로 처 노코 보니 네사람이 자기도 빽빽해 맛는데다가 人員增加로 因하야 一班五人制가 一班六人制로 編成되엿기때문에 한 天幕아래 六人이 자게 되엿다。퍽 비좁은 便으로 보면 그런 未安할데가 업는 일이나 빽빽히 끼여자기때문으로 춥기는 덜 추웟슬것이다。내가 드려잇는 天幕은 맛혀다가 풀을 깔고 그우에다가 防水布로 만든 그라운드·씨-트라는것을 깔아노흔것이엇다。우리는 다 옷을 입흔채로 잣다。슬리-핑·빽이라하야 亦是 防水布로 만든 자루(囊)가 잇는데 그자루안에 들어가서 자는 이도 잇섯다。나도 그한사람이엇다。

내가 드러잇는 天幕은 사람은 李相昊、方在鳳兩君을 아울려서 세사람 안되나、食糧을 둘혀기때문에 亦是、비좁기는 마찬가지엇다。五四十名의 十餘日分의 食糧을 天幕안에 둘더 차아노코서 그가운데서 세사람이 드러자라니까 누구 하나가 잘만 울속이어도 그影響은 곳 他人한테 波及하는것이엇다。天幕안에서는 가운데자리를 讓步하는것이 큰 待接이엇다。李相昊、方在鳳君의 好意에 依하야 나는 가운데자리에서 자게 되엿다。

地面自體가 좁흔것은 아니나 天幕을 한군데 몰바아 친 關係로 다른 天幕에서 기침 소리만 나도 곳 서로 들닐 地境이엇다。二十六匹의 馱馬、騎馬도 天幕으로부터 얼마 멀지 아니한 곳에 매여 노앗다。그런 關係로 人馬間에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떼여 가지고 보면 자는 時間이 잇섯슬것이나 人馬合一百十名의 全體로 보면 반드시 몃名씩은 깨여 잇섯다。스러저 가는 화루人불에 장나무를 넛는 사람도 잇섯고、말로 말해도 한두사람 쪽 세째의은 장울고 잇다。그러므로 자다가 어떠케 깨여서 눈을 벗듯어 떠보면 猛烈한 勢로 부터 오르는 화루人불의 火焰을 天幕의 布壁을 通하야 볼수가 잇는 同時에。千年萬年을 두고 沈默을 직혀 오든 原始林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말(馬)의 소리를 드를수가 잇섯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떠 보면 또는 그瞬間으로『險을 무릅쓰고 空山에 와 누엇스니 天地가 곳 衾枕이로고나!』하는 느낌을 禁할수가 업는데다가 布壁에 비치우는 火焰의 그림자가 눈을 通하야 비치우고、그므엇을 呼訴하는듯한 말의 長嘶가 귀를 通하야 들려올때면 實로 무어라고 形言할수업는 一種 悽凉함을 느끼는것이엇다。

멀리 잇는 李相昊君은 翌日 아츰에 傳書鳩에게 지워 보낼 通信을 쓰노라고 밤 十二時가 넘도록 애를 쓴 사람이다。相昊君은 우리 一行이 茂峰까지 온 安否動靜을 本社에 通信할 任務를 가지엇다。그는 그任務를 다하기 爲하야 얇은 複寫紙에다가 글을 깨알가치 쓰기에 全力을 다하고 잇다。그는 글씨를 적게 쓰면 적게 쓸사록 一邊으로는 그연약한 비들기의 짐을 가부엽게 할수가 잇는 同時에 他一邊으로는 우리 一行의 動靜을 될수잇는대로 仔細히 本社紙面을 通하야 社會에 알릴수가 잇다는것을 잘알고 잇다。이생각을 가진 相昊君은 意味는 豊富하면서 簡單한 文句를 골나서 그적은 紙面에 글字를 잘게 쓰기에 잇는 힘을 다하노라고 밤十二時가 넘도록 자지를 못하고 잇섯다。겻해서 보는 나로는 퍽 未安히 생각하엿다。

나는 드러누어서 잠을 催促하야 잠이 드렷다가는 깨고、깨엿다가는 다시 잠이들고、잠이 들엇다가는 다시 깨기를 여러차례 하엿다。

이러는 동안에 어느덧 날은 새여 午前五時가 되엿다。이러나서 자든 자리를 것고 天幕으로부터 나와 보니 一行은 발서 다 깨여 나와서 朝飯먹을 準備들을 하고 잇다。

十一日 午前五時다。아츰밥과 點心밥은 발서 엇저녁에 지여두엇기때문에 朝飯準備라고 해야 국을 끄리는것뿐이엇다。分擔차례에 依하야 오늘아츰은 第一班에서 국을 끄리엇다。국을 끄려서 아츰밥을 마치고는 出發準備를 해야 되다。

一行은 出發準備를 하는동안에 李相昊、方在鳳君과 나는 傳書鳩를 띄우기로 햇다。傳書鳩두 마리에다가 寫眞과 記事를 너은 通信筒을 지워서 띄우랴는 즈음에 警備隊에서도 따로 비들기 세마리를 띄우기로 하는것을 알엇다。兩處의것 合하야 다숫마리를 同時에 띄웟다。노와 준 비들기가 空中高히 소사서 한바퀴 迂廻하야 西便 스폭을 지날즈음에 스폭속으로부터 독수리나 또는 매 비슷한 놈이 벼락가티 달려들어 비들기 두 마리를 움켜가지고 스폭속으로 드러가는것을 보앗다。나머지 세마리는 그들이 가야 될 方向인 東便을 向하야 멀니 다라나고 마럿다。이때 이것을 본 우리 一行은 모도 다 그 독수리를 미워하고 잡히어 犧牲되는 비들기한데 同情하엿다。그러나 이미 그러케 된것은 別數업는것이니까 나머지 세마리나 途中에서 그런 橫厄을 當치 안코 一路無事하기를 비럿다。

昨夜에 몸이 不便하시든 金相恒、明東兩氏는 이날아츰에는 健康을 恢復하시엇다。이것은 말하면 天佑요、神助이엇다。十一日午前七時에 一行은 第二日의 行軍目標地神武城을 向하야 出發을 始作햇다。(寫眞은 傳書鳩날리는光景=續)

冀察政府
北平大學에軍事訓練

【北平五日發同盟】冀察政權은最近 北平、淸華大學等 大學의卒業生中에서 選拔한 五百十七名을 採用하야 三個月間 軍事訓練을 하기로決定하고 宋哲元、秦德純等出席下에 五日朝 南苑의 兵營에서 右訓練의 開始式을 擧行하엿다 冀察政權結成當初에 이大學生은 絶對反對를標榜하고 學生運動을 起하엿다 軍事訓練에 對하야 現在 第二十九軍은 學生과의 사이에 對日共同戰線을 中心으로 學生과接近하야 密接한 關係를示하고잇서서 右訓練도 兵學統一戰線을結成할 目的이라고 注目되고잇다

北中軍權"廿九軍"
排日策謀의根源?

【北平四日發同盟】宋哲元氏의第二十九軍領袖가 親日政權인 冀察政務委員會의 主體로 存在하는데 對해서는 各方面의 非難이 漸次 濃厚하게되고 잇는데 特히 同軍下層士卒은 往時 馮玉祥氏가 察哈爾에서 徹底的排日訓練을한 關係上 排日思想은 依然히 强하야 屢屢不祥事를反覆하고 잇다 그런데 第二十九軍의 向背는 北中政權에 及하는 影響이 甚大하야 俄然 注目되게되엇다 右同軍이 이러케된 原因은 第一、第七師長馮治安과 第卅八師長 張自忠의 內部的 抗爭이 甚하야 宋哲元氏의 命令이 徹底치못한것 一、第廿九軍全軍에 對한 宋哲元氏의 統制力이 喪失되엇든 等에 依한것인데 駐中軍部는同軍의 根本的改編의 必要를 痛感하고잇다

八面鋒

◇遭難同胞의 慘狀을 車窓으로 내다보고 온 土耳其人 바멜젠氏夫妻 洋服 四十餘着을 本社에 寄託。

◇제 同胞를 제가 救하는것도 至誠이아니면 못될 일이어든 하물며 먼나라인 土耳其人이 數百着을 줌에랴。

◇이 誠心이야말로 民族과 國境을 超越한 人類愛의 發露

◇今番 水害復舊工事에는 賦役을 시키지 안코 勞賃을 撒布하겟다고 政務總監 言明。

◇賦役은 二重의 搾取、이것을 廢止하고 勞賃으로 工事한다는것은 正當한일。

◇그러나 이 賦役廢止를 이번 復舊工事에만 限할것이 아니라、平素의 賦役制度 全體에 미첫으면。

◇日 遭難民의 救濟、日 罹災者의 住宅建築、日 普通學校 建築에 賦役等 弊害는 非一非再。

今日本紙四面

조흔家庭工業
第一 [illegible]
第二 [illegible]
大阪港區市岡町四丁目
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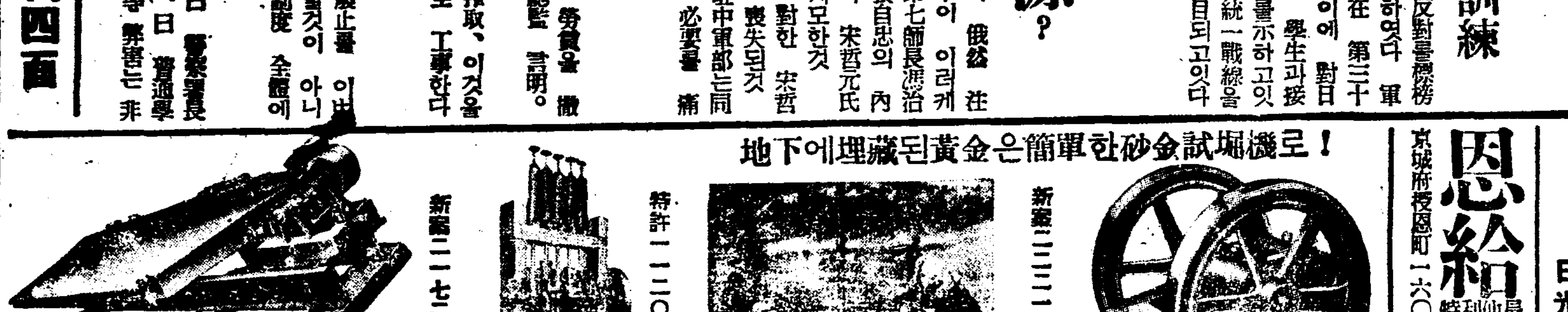
山下テント
釜山大倉町
カタログ進呈

强精强壯의權化
支那宮中秘藥
九龍虫
血液循環、胃腸內臟에 活躍하야 便秘根治、婦人病、衰弱體質에 神効
現在飼育量 六十餘萬首
每首 二錢
地方注文에는 百首以上
京城府黃金町一丁目四五
三生醫院

朝報案內
募集
學力中等以上三十歲以上의男子로外交에經驗이有하신분을募集하오니希望하시는분은午前中에來店하시요
京城府鍾路四丁目五九
日光堂藥品部

恩給
長期據置 他에比較하야 有利
京城府授恩町一六○ 鄭商會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掘機로!
新案二一七二四○號
特許一一二○二九號
新案二二二二七號
京城府中林町 電本局 三四四○番
朝鮮鐵工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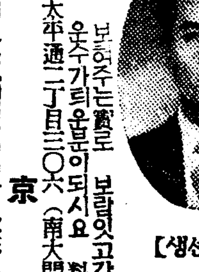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米國專賣特許出願中
空氣銃部 農具部 綿打機部
型錄請求次第無代進呈(部品別)
綿打機 空氣銃 製繩機 製叺機 稻扱機
合名會社 利善工場
電話一○九番
振替京城一四七八六番

京城婦人病院
産科 婦人科 癌라듸움科
李敬信
電本②○四八二・三八九三番・京城北米倉町九四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京城中林町一五五
電話本局(2)二三八番 一二八一番
專務取締役 李圭元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鍾路警察署前
總販賣部

京城鍾路二丁目
時計完全修理
普信堂時計舖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相學院



【성룡선생】
京城太平通二丁目二○六 (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り)
(사진이잇스면더욱명확함)

優美館
伊之吉時雨笠
九番目の客
邪神島

團成社
本人出現
深紅의徽章
乙女綺

不歸의님은水中孤魂 【三】
沙場엔破船된木片뿐
"望眼欲穿"의그生活도지금엔樂이엇는가
南海漁民들의暗澹한이慘景

慶南災地에서 李鍾模 發

강물이 넘고 내가 터지고 산이무너저서 귀중한 인명이 만히희생되고 평전 옥답이 모래밧으로되여 버리는등의 참상은 이곳 저곳의 륙지에서 나타난 사실로 우리들의 눈을 더욱 놀라게하는바이지마는 긔자가 돌리어 본 남쪽 바다스가의 피해상황은 홍수로 말미암은 륙지의그것과는 딴판으로 또한 참혹한 현상이다 해변이나 섬에는 바다스물이 넘기전에는 수해라고는 생각도 해볼수 업는곳인데 지난번의 남조선일대와 중부조선일부를 엄습한 맹렬한 태풍은 이르는곳마다 해일(海溢)을 이르키고 가옥을 날려보내고 만흔 생령을 물속에장사하여버리고 선박 기타어구(漁具)등속을 모조리 사나운 물결속으로 휩쓸러가버렷다 자연이 우리 인생을 시련하는것이라면 너무도 도수에 넘치는시련이며 자연의 작란이라면 너무도 악착한 작란이다

◇

남해만 보드라도 부산(釜山)을 비롯하야 마산(馬山) 통영(統營)삼천포(三千浦)등 각항구와 목구에서 바람을 피하기위하야 대이고잇는 배들의 파손된것도 만커니와 바다가에 안저잇든 집들은 송도리채 날려가 버리고 집터(址)조차 차저볼 형적이 업서저버렷다 부닥처오는 산덤이가튼 물결에 삽켜저 버린것이다 동시에 아까운 인명도 그파도에 휩쓸려 드러가서 고기밥이되여 버리고 그시체조차 차즐길이 업시되엿도 만하다 더욱이 통영고을은 해분이 일백수십개의 크고 적은 섬들로써 구성되여잇는 고을임으로 연안에 잇는 다른 고을보다 그 풍재수해를 입은 상황이 더심하다 섬아페 매여잇든 고기잡이 배들은 거의 전부가 다떠나려가버렷거나 그러치안흐면 조각조각이 부서저버렷다 그뿐이라 고기잡이에 필요한 여러가지 어구와 선구(船具)들도 다 물결가운데로 허러저버렷다

◇

이러한 모진 풍랑을 맛나자안는다드라도 평소에 그 넓고기픈 바다와 싸우지 안흐면 그생도를 이어갈수업는것이 어민들의 생활이여서 그할당한정한은 륙지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바이어든 또한거기안간에 맛난 이와가튼 풍재와 수해를 겪고난 그들에게는 모도가계로 도라가고할것다 더심하데는 일가의 생계를 마타잇든 가장이수중고혼이되고 말앗스니 그야한안해와 어린자녀들은 참담한 사정에서 눈물만뿌리며 우렁찬 하늘을처다보고 또는무서운 바다를바라보고 원망하여 한숨만 쉬우고 잇는 형편이다 그들의 주리창자를채워줄 아모량식도 업스며 그들의 헐버슨 몸뎅어리를가리워줄 아모 옷가지 하나도 업다

◇

어민들의 직업이라것은 평소에도 일종 투기성(投機性)을 띄운것이여서 요행이 고기가잘잡히게되면 어업조합(漁業組合)이나 기타 채권자(債權者)들의 빗을 가파 가면서라도 그들의 호구를 도모해 갈수잇지마는 만약 수세(水勢)의 판게로 고기가잘잡히지안는때는 그들은 끼니도 이어갈수업는 아주 딱한경우에 이르게되는때도 만흔것이다 그밧게라 저 머나먼 바다가운데로 고기를 잡으러나가서 순조롭게 고기가 잡히지안흐면 이들은 집에도라가지못하고 그냥 바다에서 기류생활을 계속하는것이다 이런때에 그들의 안해와 자녀들은 항혼이 바다가운데로 기우러진때마다 가이업는 바다를바라보고 걱정 하며 근심하야 그야말로 「망안욕천」(望眼欲穿)하기린한 정경인것이다

◇

평상시에도 그들의 생활은 이와가티 참담하던바가 만흔터인데 이번의 풍재와 해일로 말미암아 유일의재산인 배와 선구와 어구와 혹은 그의지할 오막사리집까지 다 잃어버렷스니 이들의 앞길은 참으로 암담하다 만약 인류로서의 사랑이잇다면 또는 동포로서의 정이잇다면은 이때 이런경우에 이들을위하야 한벌의 옷이라도 한홉의 쌀이라도 한푼의 돈이라도 던저구원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위정당국자는 이들어민들의 철저한 갱생방책을 강구하여야될것이며 어업조합가튼데서는 그들의 대부금(貸付金)은 그상환기한을 장기로연기 또는 포기할방도라도 강구하여주어야할것이다 (계속)

晋州災民收容所엔
泄瀉와腹痛者續出
各醫療機關이總動員活動

【晋州】금번미증유의 대홍수로인해 진주읍내의 리재민수효는 일만여명을돌파하엿스나 당국에서는 이가튼만흔 리재민에게 일일히 구제의손길을 펴기는너무나어려우므로 그중에서 참으로딱한수할수업는 극빈리재민을 추려고추려서방금삼천여명을시내 각학교 강당과교실에다가 수용하고서 하로두끼식 주먹밥을공급하고잇스나 무엇보다 병인이속출하여 매우딱하다고한다 병자대부분이 배아픈병과 설사병으로 공의를위시하야 여러의사가 매일각수용소를 차례로다니면서 치료와예방에전력을 다하는중이나제일보통학교본관이층교실에수용되여잇는 리재민중에 진주시내 서봉정(西鳳町)삼오번지 김상문(金相文)(三七)이란 로동자는 지난이일오후에 배가아프다고하여 의사에게 주사까지마젓스나 다음날오후륙시 방경에 그만죽고마럿는데 긔자가그곳까지차저가니 죽은사람의 아들 명세(明世)(十)、명룡(明龍)(十三)、삼룡(三龍)(六)삼형제가 컴컴한 어두운곳에서 아버지시체를 붓들고 "우리들 마저다리고 가라!!"고 통곡하는양은 가리잇는 리재민들의 눈물을 자아내고잇섯다 그들의어머니도벌서 재작년에 죽고 업다고한다

李辯護士
五十圓義捐
東亞工業十圓

금번수재에잇서 동족의 열렬한 동정은 날로는 련일본보지상에 보도되는아름답고도 눈물겨운이야기로 잘알려지지만 륙일본사에 기탁하여 온것은 다음과갓다

▲現金 五十圓 京城府漢江通四六 辯護士 李升稙

▲現金十圓及衣類三十三點 東亞工業所 閔完植

江原道에傳染病
患者發生百餘名

【春川】금번 강원도내의 홍수로인하야 비절참절을극한 공전의 대참해는 연일 본보에보도되는바이어니와 강원도일대에는 아직도 날시가 것지아니하야 각군에 비가 계속하야 나리는중이다 도내·리재민총수는 실로 십일만칠천명가량을 산하고 잇는데 그중의 요구호자만도 무려 사만명을 돌파하는 참상이다 이들리재민은 의지할집이업서 산과들로 헤매이며 먹을양식이업서 굶주린 창자에 의복조차업서 떨고잇는 광경이란 산천초목도 처량한빛을 띄인듯하며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수중에 떠나려보내고 호부호자하는 통곡성은 방방곡곡에 창일하야 뭇잇는자의 뜨거운눈물을 자아내고잇다 이들 십만리재민에게 설상가상으로 전률(戰慄)과 공포(恐怖)를 늣기게하는바 잇스니 그는수해지에 전염병창궐이다 적리(赤痢)장질부사(腸窒扶斯)등 무서운전염병의발생이발서백여명을산하다하며 기후의부조로각종 질병이 만연하야 무참히생명을빼앗기는일이 적지안하야 이러나고 잇다한다 이를염려한강원도위생과에서는 구호반을 조직하야 적극적구료를 실시중에잇는데 그 활동상황은 다음과갓다

救護班活動狀況

▲淮陽郡 一隊

▲高城郡 二隊 內一隊는赤十字病院班

▲襄陽郡 二隊(道衛生課一班 元山醫院一班)

▲三陟郡 二隊(道衛生課一班 江陵醫院一班)

感激의同胞愛!
童心世界에더活潑

奇特한三男妹
小兒服아홉벌을提供

동심(童心)에서 동심으로! 리재지에서 기한에 떨고잇는동무들에게한벌의옷 한줌의쌀이라도보내지안코는 안젓지못하는순정의 동심에는 다만감격의눈물이잇슬뿐이다

시내 내수정(內需町)칠십번지의 이십팔호 김희산(金熙山)(一二)군과그의누이동생희자(熙子)(十)와 희순(熙順)(八)이의정다운세남매는륙일아츰 본사를차저와 소아복아홉벌을 리재지동무들에게보내달나고 긔탁하엿스니 긔특하고 거룩한일이라하겟다 (사진은김군삼남매)

感激의崔少年
쌀과옷과돈을

【開城】『이천여의생명을 몰살시키고 남어지 구십만명의 리재동포를 벌거숭이로맨든 이번물난리엔 우리가치 어린동무들이 재지에몰켜서서 엄마、압바를부르며 굶주려 울고잇다는 신문기사를보니 그들의 처량한울음소리가 내귀에도 들니는듯해 나

도울엇습니다 그들을 동정하는데 한벌의옷、한줌의쌀이라도조타!』는데 용기를어려 저는 엄마를졸라 쌀두되와 의복여섯벌을 어든후 한푼두푼사러 모아두엇든 『일원이십륙전』을 합처가지고왓스니 이것이나마 불상한 동무들에게 보내주십시요』…… 이런 눈물에젓힌부탁을하며 저난사일 본보개성지국을 차저온 최희균(崔希均)(一二)이란 소년이 잇다 그는개성부내만월정(滿月町)삼십사번지 최광일(崔光一)씨의 자제로써 현재 만월공립보통학교 사학년에 재학중인바 평소 품행이 방정하야 선생의총애를 바더오든 소년이라는데 더욱이 이번 아름다운 그의인정미담에 모다감격하엿다 (사진은 동정품을보내온최소년)

京保生日曜利用
衣服製作에熱中
모다가재봉틀에돌아안저서
數百點을釀出豫定

◇寫眞은 京保生들의 衣服짓는 光景

수해지의 형세와 자매들 구원하자는 구원하자는 소리에 호응하야 뚝잇고 열정잇는 동포들은 돈으로 의복으로 량식으로 또 천진한 아동들은 『벙어리통』 혹은 읽고난 교과서등으로 작구모아다가 수재지로 보내달라고 본사에로 보내오는터인데 부내 청진정(淸進町)에잇는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 생도들은 련일 신문에 보도되는 각지의 수해참상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우리들도 힘을 합하야 구제품을 보내자고 의논하고 륙일부터 일제히 의복을 모으기 시작하야 저고리 치마 바지 내복 족끼 두루마기등 여러가지 의복 이백여가지를 모으고일방으로 그학교강당에서 새옷감을 끈허다가 공동으로 옷을짓는등으로 가진성의를 내고잇다 수년전 남도수해때에도 이학교에서는 일부러 새옷을 만히지여서 보낸일이잇섯는데 이번에도이와가티열성을 내는것은 참으로눈물겨운 가상한일로 이들의 지은 옷들을 밧는 수재지 동포들에게 저윽이 위안을 주게될것이다.

貴여운두男妹
『벙어리』를바처

륙일 서내 권농정(勸農町)사십이번지사는 교동공립보통학교(校洞公普)이학년생 서병복(徐丙福)(九)과 그의 남동생인 동교일학년생 병두(丙斗)(七)의 두남매가 차저와 일원오십전과 일원오십일전들어잇는 벙어리두개를 기탁하고 도라갓다

開城貞芝學院의
無產兒童美擧
分分히모아災地로

【開城】참담한 물난리통에 구사일생으로 겨우살어낫스나 입에 풀칠할량식이업고 몸에걸칠옷이업서 문자그대로 기한도골(飢寒到骨)에 이른 구십만생령이 풍전등화의 생지옥에서 허덕이고 잇다함은 매일신문보도로서 잘 알수잇스나 부도(富都) 개성인사의 구재의 열과성은 미미하기 짝이업는이때 부내고려정(高麗町) 한모퉁이에잇는 무산학원에서 어린그들의 구제의따뜻한 손길을찻게 되엿다 현재 권태원(權泰源)씨의 단독경영인 정지학원(貞芝學院)백여명아동과 몃선생들은 남달른

동정에 열혈잇고 매일 푼푼히 모은동정금을 리길모아 태산으로(오원칠오전)옷맨들어지난일 당교학생이 본보개성지국을 차저와 의탁한바잇스니 그들의가룩한점에 일반의칭송은 놉다한다

"匿名의婦人"이
새옷六十點
일홈도아주감추려고하든
謙遜한鍾路의朴氏

륙일오후 본사에는 나이사십가량되여보이는 중년부인 한분이 옥양목새로 새로운 남녀옷 설흔벌 바지저고리 한하유 륙십건을 가지고와서 락랑에가장솜들을 빼앗기고 떨고 잇는 사람에게 하로밧비 입혀달라고 내노앗다 그러고 부인은 사진을 하찻백이자고해도 절대로응치안코 그냥도라가려고하며 성명조차 말하려고 안햇다 그러나 성명도 몰으고 바뎌서는안된다고하야 겨우 주소성명만아르켜주며

『성명은아려서 무엇하오 사진이다 무어어구 내야옷이나 가저왓스니 그것이나불상한사람들에게 전해주면그만이아니우 그까짓게무어그리사랑스러운일이라구요』

하며 극히겸손하고 다정하엿다 부인은 종로사정목 구십이번지 박유상(朴有相)씨이엇다 참으로 겸손하고 아릿다운덕을 가진부인이엇다

册업는災地동무爲해
教科書들고온少年
제가읽든책수무권을본사로
阿峴高等小學校의金德泳君

오일 본보석간에 "수해지의 오만아동 교과서업서취학불능"이란 긔사를 읽은 시내 신설정(新設)서백칠번지 사는 시내 아현정(阿峴町) 경성공립남자고등소학교(男子高等小學校)일년생, 김덕영(金德泳)(一三)군은 교과서업서 학교에 못가는 리재지동무들의 가련한 정상을 생각다못해 자긔가 쓰든보통학교교과서 이십권을가지고 륙일아츰 본사를차저와 긔탁하엿다 본사로서는 교과서의접수가처음이니만치 감격에 넘치는바이며 이런긔특한아동이 만히출현하야책이업서 학교에못가고 울고잇는 수해지아동들이 하로라도속히학교에가도록되여지기를 바라마지 안는바이다 (사진은김덕영군)

水產慶南의被害
無慮一千萬圓
漁船、漁場等의被害實로甚大
漁民의生途가漠然

【釜山】경상남도 수산과에서는 금번의 대폭풍으로 말미아마당한수산관게(水產關係)피해에대하야 조사를 하던바 지난오일에 전부판명되엿는데 그조사에의하면 사망자 륙십명 행방불명자사십칠명 부상자 일백이십오명 어선(漁船) 류실、오백 오십사척 전괴(全潰)이천삼백삼십구척 반괴(半潰)이천륙십삼척과 어업조합건물(建物)급 공동시설(共同施設) 어구어망(漁具漁網)등의피해도 상당히 만허서 그 피해총액이 약 일천사십삼만칠천오백이십삼원에 달한다하며 직접간접으로 피해를 당한어업자들은 종처를 복구하거어려운형편으로 그들의전도가 우려된다한다 피해총액의 내역은다음과갓다

▲漁船流失破害 七三五四六〇圓

▲組合共同施設 三五八四七圓

▲漁具漁網 一五五八八〇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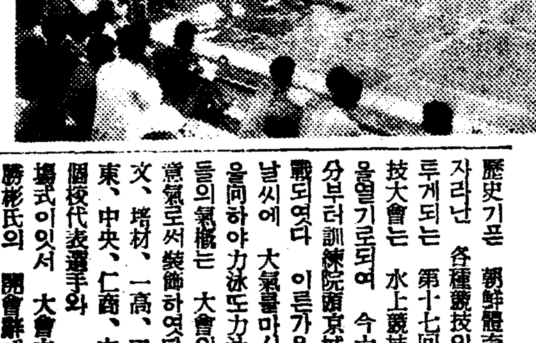
▲養殖物 三七六五〇圓

▲建物製造設備 一五九三六〇圓

▲生產減少豫想額 九三一、〇三一五圓

▲總計 一〇、四三七、五二三圓

訓練院頭에展開된
綜合競技前哨戰
朝鮮體育會主催第十七回大會
活氣潑剌한水上競技戰開幕



(寫眞은四百米自由型스타트光景)

歷史기픈 朝鮮體育會는 아래서 자라난 各種競技의 燦爛한蓋을 두게되는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는 水上競技로부터 첫幕을열기로되여 今六日午前十時十分부터訓練院京城水泳場에서開戰되엿다 이른가을하늘 흐릿한 날씨에 大氣를마시며 最後의勝을向하야力泳又力泳하는出戰勇士들의氣槪는 大會의劈頭를 젊은意氣로써裝飾하엿다 定刻에 徽文、培材、一高、二高、養正、中東、中央、仁商、中等公民等외九個校代表選手와 一般部選手외入場式이잇서 大會本部委員長 朴勝彬氏의 開會辭에뒤이어 昨年度 中等校 對抗競技의 優勝校 徽文高普로부터 優勝旗 返還이잇고 參加選手 一同을 代表하야 二高水上部 主將李友喆君의 宣誓文朗讀이 잇슨다음 審判長 鄭彰熙氏로부터 競技에關한注意事項을 말하고 競技는 同十一時부터 百米背泳豫選으로부터行한바中等部에는 徽文高普軍이斷然優勢를보이고잇스며 이날夕刊마감까지의 成績은다음과갓다(當日氣溫 二十三度、風速十米突)

【中等部背泳百米豫選】A組1李斌淳(徽文)一分三五秒六 2林見稷(養正) 3姜文秀(一高) 4朴實琛(二高) B組1秋成求(徽文)一分二九秒四 2劉鳳在(仁商) 3朴炳雲(養正)

【中等自由型四百米豫選】A組1金石永(仁商)六分二三秒八 2朴性用(徽文) 3李友喆(二高) 4崔鶴烈(中東) B組1朴昌圭(二高)六分四五秒二 2金鍾振(徽文) 3金在德(養正) 4閔泳昌(一高)

【一般百米背泳】1吳振榮(京城)一分二五秒七(同大會新記錄)

【同四百米自由型】1李熙鎬(普專)六分八秒六

【中等二百米平泳豫選】A組1李恩生(徽文)三分八秒 2崔琮鎬(公民) 3金相鎭(養正) B組1金在玉(徽文)三分二七秒五 2李順福(養正) 3愼安晟(一高) C組1朴亨千(徽文)三分二三秒四 2朴璉龍(培材) 3鄭淳學(二高)

【中等百米自由型豫選】A組1金石永(仁商)一分一二秒(同大會新記錄) 2金錫鏞(養正) 3朴斗錫(一高) B組1洪鶴仁(培材)一分一四秒二 2金永西(二高) 3洪龍杓(公民) C組1金仁洙(仁商)一分一七秒 2金炳漢(徽文) 3林善璜(二高)

【中等八百米自由型豫選】A組1朴性用(徽文)一三分五五秒三(同大會新記錄) 2金在俊(養正) 3閔泳昌(一高) 4鄭觀澤(徽文) B組1金鍾振(徽文)一四分二二秒四 2朴昌圭(二高) 3柳重烈(一高) 4沈相璉(養正)

【中等二百米背泳決勝】1秋成求(徽文)三分一一秒六 2李斌淳(徽文) 3林見稷(養正) 4劉鳳在(仁商) 5朴實琛(二高) 6朴炳雲(養正)

【中等四百米平泳豫選】A組1李恩生(徽文)七分四秒七 2鄭淳學(二高) 3孔炳斗(培材) B組1朴亨千(徽文)七分一六秒七 2崔琮鎬(公民) 3朴璉龍(培材) C組1金在玉(徽文) 2金和鎭(養正) 3金相欽(中央)

平實4 大田1

京日主催의 第十三回野球爭霸戰第一日:平壤實業對大田鐵道戰은 六日午前十時五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平實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對一로平實이勝하엿다

投捕=平實(朴賢明、松本) 大田(全東珍、尹占洙)

平實 001002010—4

大田 000000001—1

◇◇明日의運動◇◇

◆野球=爭霸戰第二日 釜山鐵道(午後一時) 殖銀對平壤實業(午後四時)以上京城球場

朝運平壤支店
人夫三十名罷業

【平壤】조선운송평양지점(朝運支店)화물자동차의 로동자 일명조사(仲仕)삼십여명은 사일 밤부터동맹 파업을 단행하고 회사측과대치중이다 임상대우불친절과 임금이적은관계로 불만을가지고잇든 삼십명은 수일전 동요를이르키어 형세가 험악화하자 눈치빠른회사 당국으로서는 주모자로 인증되는삼십명을 해고햇다 그러나 고락을 가티하는 삼십명은 사일 총파업을 단행한것으로 임은륙십전내지 칠십전이든것을 능률제(能率制)로변하여 이밥봉에도 채도달하지못하므로 임금인상을 요구햇든바 십삼명을해고한것이다

白頭山講演·映畵
九月七日의招待區域

본사주최의 백두산탐험보고 강연영화대회의 제칠일인 칠일밤에 초대할독자의 구역은 아래의각동리인데 시간은 밤칠시반부터 본사대강당에서 열린다

第七日、橋北町一部、杏村町一部、峴底町一部、蓬萊町四丁目 西界町、元町、山手町、岩根町 錦町、京町、麻浦町、龍江町、大興町、玄石町、倉前町、滄川町 大峴町、大島町、新生町

天氣豫報

概況 七五二미리의 低氣壓은 關東州에 잇서 不連續線을 伴하야 東北東으로 進行中이고 高氣壓은 北滿과東部西部에 擴大되엿잇다 北滿은 曇、南滿洲와 半島中部以北은 雨 南朝鮮은曇 朝鮮海峽은天氣가 良好하고 太平洋岸日本은 大體로 曇 日本海岸은 大體로 晴

豫報 今夜는비가오다머저다 明日도同 京畿全區도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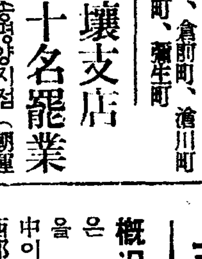
昨日最高 二四度六 今日最低 二一度八 今日正午 二五、一

品質第一等 桃屋의 후루ー쓰 果實罐詰

白桃、黃桃 枇杷 西洋梨 후루ー쓰사라다 蜜柑 櫻桃 鳳梨

各떼파ー트와 食料品店에 잇소

發賣元 東京 桃屋商店 京城 辻本商店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을購讀하야 合格保證、特典으로全鮮入巡査試驗問題集等 三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一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二〇番 (規則書即送)

博士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 無代進呈

田中醫學博士의新製인털나는藥후미나인은毛髮의發生을促進하야그脫落을防止하고、即頭頂、눈섭、수염、腋毛、其他人體毛가稀薄한것을만케하고 毛根이라도털나는藥 후미나인의效驗으로 漸次生長식혀요 또禿頭病에効하야

毛生藥 후미나인

털이脫落되는것을 防止하고 또 이諸病에 原因한 禿頭脫毛에 對하야서도 病菌을 撲滅식혀서 그와갓치 털을나게 하오。

●대머리●젊은대머리●앞이마넓은대●脫毛●헐어털빠진대●대리꼭지상한대●눈섭성긴대●털잘못난대●男女의꼭잇슬곳에털업는분……은곳다말고곳使用하라

(全國藥店에잇슴)

후미나인價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萬一品切時는 代金添付注文하라、即時送藥함。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東京藥院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三一八三二

大阪市赤十字病院前 東京藥院 電話天王寺三五五六 振替大阪五八八

模造品이만흠 꼭후미나인이라指名하시고買入하시오

정탐들이 쓰는 비밀「잉크」
어떤때만히쓰이나?
조하재

여러분 비밀잉크라는것을아십니까? 지금부터 이상한 이야기를하나하겟습니다. 비밀「잉크」라는것은 얼른보기에는 아모것도 써여잇지안는것가티도 그것을 엇든 약품속에 너헛다가 내여보면 글자가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는 약품으로 쓴글자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비밀「잉크」는 엇더한때 만히 쓰이느냐하면 전쟁이 이러낫슬때각국의 「스파이」(정탐)들이 적국의 비밀을 정탐해서 본국으로 보고하는데, 쓰게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잉크」는 각국에 비밀국이라는 긔관이잇서서 모다 서로 닷투어 가면서 연구를 해서 남이 모르는것을 발명하려고 애쓰는 동시에 또 한 비밀잉크로 쓴글자까지 잘 나타나게하는 약품, 다시말하면 사진에서 쓰는 현상약품가튼것을 발명하려고 애쓰고잇는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잉크를 가지고 적국의 형세를 탐정해서 본국에 보고하는것이 탄로가나면 곳 총살을 해버리는때문에 가장 교묘한 수단을 다해가면서 쓰게 됩니다. 그럼으로 먼저 세계대전때는 별별 수단으로 이러한 비밀잉크를 쓴것이 만습니다. 가령말하자면 손수건이나 「샤쓰」가튼데 비밀잉크를 무쳐가지고 적국에 드러가서 그나라의 형편을 탐정해가지고는 「샤쓰」가튼것이나 손수건에 써가지고 가든지 심하면 종이나 필가튼데다가 써가지고서 다니거든 하엿답니다. 그럼으로 불란서 국경가튼데서는 비밀잉크로나 타나는 약품으로 [illegible] 만든 [illegible]에 노모서 수상한자는 그룹 독일에 잡어너엇답니다. 그래서 탄로가나면 그만 총살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잉크를 가지고서 글씨를 쓰는때는 보통펜으로 쓰면 「잉크」비츤 보이지안허도 「펜자욱」이 나는때문에 특히 비밀잉크를 쓰는특편이 따로 잇답니다. 그것은 엇더하냐하면 「펜」끗헤 솜이나 「알미늄」가튼 연한 솜속을 뭇처서 조희우에써도 아모런 자욱이 나타나지 안케되여잇답니다. 그런데 전쟁이되면 이러한 탐정이 엇지나 만엇든지 세계대전때는 미국서 일주일동안에 수상한편지를 이천통이나 검사해본결과 그중에 오십통이 아주중요한 비밀편지이드랍니다.

이러케 통신용하는 이외에도 여러가지로리용하는데 세계대전때 영국군의 어떤「스파이」는 독일에 요세지도를 아주 투명한 조희에 비밀잉크로 그려가지고서 그놈을 안경유리에부처가지고 예사로 독일 국경을 통과해서 「오란다」국경에 잇는 제편「스파이」에게 무사히 전해주엇다고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되면 이러케 성공하는수도 만코 또 잘못해서 발각이되면 총살을 당하는 수도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잉크로 쓴편지가 탄로되엿슬때 그「스파이」를 죽이지안코 도리어 이용하는수도잇습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영국비밀국에 수상한편지를하나 압수해서 보니 비밀잉크로썻는데 그편지에는「×늬가북으로간다」(二〇二)이 보고할것이다」라고쓰여잇드랍니다. 그래서 그편지보낸사람을 잡어서 취조해보앗스나 입체 대답을하지아니함으로 곳총살하고서 다시 그편지가튼 주소에다가 꼭 그편지 모양대로 「돈을보내라」고 비밀잉크로 써보냇드니 과연돈이 왓드랍니다. 이러케하기를 몃번이나해서 약 오천원이나 바덧습니다. 그뒤에는 저쪽에서도알어채렷든지 다시는 돈을보내지 안트랍니다.

여러분 요지음 신문을 보셧습니까? 먼저번에도 비가 만히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등지에는 물난리가나서 야단이든것이 채 열흘이못되여서 또 경상도 수해가 낫습니다. 두번물난리에 자세히는 몰나도 사람이 죽고상한것과 집이떠나려가고 전지를 무든것이 퍽 만탑니다. 그래서 모다 물을피해서 산으로 들판으로 흐터지게되니 집도업고 옷도업고 먹을것도업시 산과 들판에서 떨고 굶주리면서 지난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여러분은 보지도못하고 겪지도못하니까 얼마나 가엽고 불상한지 모르겟지마는 그중에는 여러분과가티 나이어린동무도 만습니다. 밥도 울케 못어더먹고 학교에도 못가니 얼마나 가엽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동무들을위해서 어떠케 동정하고시픈생각은 업습니까? 여러분이 하로에 군것질하는것을 앗겨모호고 여러분이입다가 남은 옷가지라도 모아서 밥을굶고 치위에떠는 동모들에게 보내도록하십시요. 그돈이나 의복은 모아 선생님께 드리고 전해달나든지 동회로 갓다주든지 신문사로 갓다주면 됩니다.

兒童劇 "메미자비" (全一幕)
(1) 南基薰

나올사람
공긔 (날개도조곰너저도조타)
인순이 (열서너살)
경숙이 (열너댓살)
영애 (인순의동무)
메미 一、二

때 여름
곳 어느산골짝이
무대 한옆쪽에는 큼직한나무몃개를세우고 바닥은잔듸바를깔면된다 그리고 나무뒤로좁은꼿이잇고 또무대뒤로가는문을맨든다 인순과영애는 매미채를가지고나와안저 무엇을자미잇는듯이 이야기한다.

인순 (매미채를들고이러나며) 에-영애야 우리 저기가서매미잡을가
영애 그래잡어보자 그래나우리에게잡힐가겟니(새가나붓이) 그러면 너오늘 [illegible]시간에 공기맥지
인순 그래벗서 활-공기빨이상한놈이지
영애 그래공기는 어디던지잇고 도공기가다르데로 옴겨가면바람이 생긴대―
(매미가 맴-맴- 하고 무대뒤로나무속속으로 날려간다)
인순 활그러레 (매미가날러오는것을보고) 애저기 매미가날러온다 엇는보자 (나무아프로갓가서)
(어디서인지 공긔 소리가하고 들린다)
영애 에이거를 [illegible] 엇고나
인순 (공기울드르며보며) 에-여기도잇다 도거비도달려간다지 [illegible]저기
영애 여기도날려왓다 어데와어리와 저리도날려간다
공기 (나무숨속에숨엇다가) 아- 요것들봐라 꼬거맹낭하다 그레인사도안하고 날을 [illegible]고 그것참 안되애들이로군
인순 (깜짝놀라며) 에 영애야 어디서 사람소리가 들리지 그것참 이상한일이다 사람은 뵈지안는데 말소리는 똑사람이야
영애 안야 네가 새소리를잘못드럿지 그러치
인순 안야안야
영애 그럼 바람소리엿고나
공기 애-애 너이들말한마디업시 다른사람들은 인사하는데
영애 (도[illegible]주춤하며) 아니 어서 [illegible] 인사해 거 누구소리냐
인순 글세 엇가 네가들엇니 그저 그래라니까 그래그거사람소리가안야
영애 아니 그게 [illegible]이냐 사람은 뵈지안는데 사람소리가 나니 아마 여호가보다
인순 여호도 한야 에 우리 번무려보자
영애 아이 웃어주겟네 아모도 업는데 누구보고 무려봐 [illegible] 것나 하-하-
인순 (떠[illegible]노코 한번무러보자는 듯이) 공중에서 말이잇습니 나 도공중에대고 무러보지 왜안돼
영애 아니 그게무슨소리나 공중에대고 무러본다니누가 말을하실줄나
인순 엇더튼 한번말해봐서 대답이업스면그만이구 잇스면누군지알지안니
영애 아니 애가 엉뚱한 [illegible]
인순 글세 내한번무러볼게 너 누가만이잇서 (나무잇는쪽을 처다보며) 지금말한것은누구나 아모것도뵈지안는데 여호나 여호야
공기 응 여호 [illegible]한소리를한다 아니 내가 뵈지안니
두사람 (놀라며) 아뵈다 안뵈어 어디잇니어디잇서
공기 여기잇지안호냐 이거 안뵈여 이거
(둘이 [illegible])
인순 어디어디 아모것도 뵈지안는대
공기 꼭보고십흐냐 그래케 보고십거든인사를해라
영애 아니 너는누구냐 대체네가 누군지먼저 아러야인사를하지 어서말해라 말해
공기 그래케 꼭알고십흐냐 그러타면 말하지 나는공기다 공기야 (연제알럿니) (무대귀퉁이로나온다)

보기만해도 무서운룡들

벌어도 지금과 룡가튼 동물은 엄엇습니다. 그러나 벌서 살앗느냐하면 그러치안습니다. 중생대(中生代)만하야도룡이 살앗든데 지금은 업습니다. 이러고하는 무서운 동물이 살앗든데 지금은 업습니다 이그림 은 룡중에서 가장 조그마코 날래든 종류 또 아프로는 초식을하든 룡종류 뒤로 머리우에 비쭉나온것은 룡을 조하하든 「고리소사우라스」라는동물

童話「콩」이야기
金相德

어느산밋동리에 꼬맹이할머니가 잇섯습니다.

꼬맹이가 어떠케 적은지 몸뚱이가 어떠케 적은지 어둔 사람은 보이지도 안흘만치 조고만 조고만 존니엿습니다.

몸뚱이가 적으니까 사는집까지 적어서 지나가다가도 원다 사람사는집인지 새집인지 기로인지 분별헤 알수업을 만치 적은집이엿습니다.

이러케 적은「꼬맹이할머니」가 이조고만 집에서사는데 [illegible] 것을 어드러 산속을 해매다가 조고만콩 한개를어더 왓습니다.

꼬맹이할머니는, 「올타 고것한개만 가지고서도 오늘저녁은 배가부르게 잘 먹겟다」하고 얼른 그콩을 뒤미에다가지고 도라왓습니다.

집으로도라온 꼬맹이할머니는 조고만회로에 짚북더기와 숫덩어리를 넛고 그우에 조고만남비를 올려노코 조고만콩을 너엇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사르랴고보니까 맛츰 석냥갑에 석냥이 한개도업섯습니다.

「앵석냥이잇서야지……」하고 종알종알하면서 꼬맹이할머니는 즉시이웃동리로석냥을 어드러나갓습니다. 그때남비속에드러잇든조고만콩이가만히생각을 하니까 인제꼬맹이할머니가석냥을어더가지고 오기만하면 자긔는 갈데업시죽게되겟거든요 그래곰곰히생각하다가 얼른남비에서 뛰여나왓습니다.

그리자 회로속에잇든짚북더기와 숫덩어리도 콩이뛰여나오는것을보구 얼른따라서 뛰여나왓습니다.

그때 셋이서 「죽을때 죽드래도 이세상구경이나 실컷하고죽자」고 약속을한후 일제히 꼬맹이할머니집에서 도망을하엿습니다.

그래 셋이서 [illegible]하게 길로 작고다러나는데 짚북더기와 숫덩어리가 한번씩 쉬어가지고 [illegible] 가고 하엿습니다. 그래서서 동모는 그날저녁때 어느강가에까지 다다럿습니다.

강이래야 실상은 실개천보다도 더적은것이지만 이들에게는 큰강과 맛찬가지로 보엿슬것입니다.

셋이서는 오도가도못하게되여 한참동안 장가에서 바라보면서 장건너갈 궁리를 보앗스나 조흔꾀는 업섯스며 날은점점어두어지고 하니까 커다란 [illegible] 생각다못해서

「여보게 할수업네 여기서야 모리 생각해도 조흔꾀는안나고 날은작고어두어지니 내가 다리의 대신노릇을할수밧게 다른도리가 업네」하며 그길다란 키를 버텨느리여 이편가에서 저편가에까지 훌훌한다리를 노앗습니다.

숫덩어리가 제깐에 몸보다 훨신 크다고 자긔가먼저건너가야 한다고 욱여서 짚호레기 다리를라고 건너가게 시작하엿습니다.

처음에는 아모러치도 안허서 중간까지 잘건너갓습니다. 다리의 중간까지가니까 짚호레기가 원래 매끈매끈한 어 흔들흔들하엿습니다. 숫덩어리는 깜짝놀래여 떠러지지 안흐려고 팔다리를 몸을이리저리 맴둥거려보앗스나 짚홀레기 다리가 너무도 몹시 흔들리는바람에 어떠케 몹시 놀래엿든지온몸에 열긔가 원통머리로 치미러올나서 머리가빨갓케 다랏습니다.

그러자 미테 짚홀레기가 그만숫덩어리 머리에다어서 다리중간이 빡근허지며 숫덩어리와 가티강물에 풍덩 빠저바렷습니다.

×

강가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엇든 조고만콩은어떠케우습든지 배를 움켜쥐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그만배가 톡 터저바렷습니다.

×

그래서 조고만 콩은 웃지도 못하고 「아이그 배야 아이그, 배야」하고소리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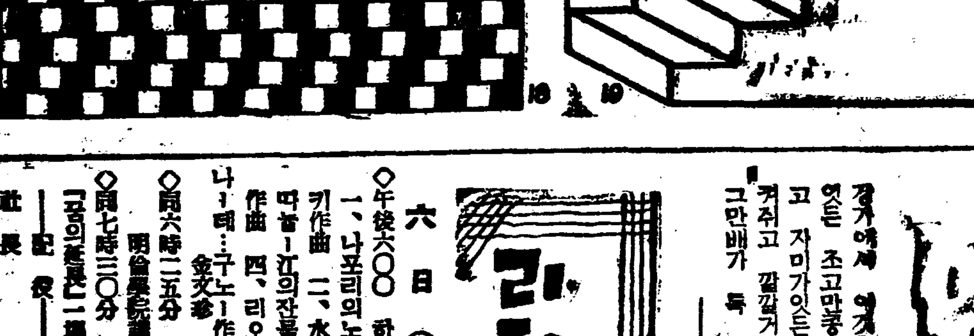
×

그때 맛츰 그아프로 지나가던 선그려장사가 이것을 보고 불상히 생각하야 신깁는 실과 바늘로 조고만 콩의터진배를꿰매주엇습니다.

×

그래서 그때부터 콩백대기에는 우굴주굴하게 실로 꿰맨자죽이 생겻답니다. (쯧)

一九三六、八、二七



눈ㅅ대중

속으니이상하지요

이것 저것은 똑가치 짜른것 바로 그래로 보나 노코 보나 똑가티 보이는것

위대한작란

「오-도바이」우에 세사람이 다고서도 굉장히 빨리 다라나는 광경입니다. 엇질 엇질 한 자랑을 하지안흡니까? 「카-브」를 돌이나하면 엇지 넘어지거나 내던지기들때를 이러케 해잇는 군인들 이랍니다. 지나가는도시사람은 [illegible] 나가다 내려가다하면서 서로 [illegible] 위험하여서 깨닷어지 [illegible] 되난답니다. 그런데 이런위에 하는사람은 누구 [illegible] 이럼니다.

六日(日曜)

◇午後六〇〇 하-모니카三重奏 一、나포리의노래…차이코프스키作曲 二、水夫의사랑 三、떠날-江의잔물결…이봐노비치作曲 四、리오리타 五、세레나-데…구노-作曲 金文參 鄭五樹 金眞英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明倫學院講師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굼의若者」一場

配役―(登場順)
社長 金貞植
給仕 [illegible]
青年 [illegible]
社員 金英輔
同 林澂彭
同 李承[illegible]
CBA 田[illegible]
女社員 青[illegible]
貞 尹白雲
效果 李昌林
音樂 李信愛

◇同八時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夢金浦打令 三、寧邊歌 四、山念佛 五、개성난봉가 六、변조난봉가 金玉仙 大笒 金永根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 天下泰平 中 [illegible] 金素姬 鼓手 丁元燮

◇同九時 俗曲 一、山念佛 二、打令 三、[illegible]方曲 四、굿거리 細笛 [illegible] 大笒 方[illegible] 奚琴 金德[illegible] 杖鼓 [illegible]九

◇同一〇時 [illegible] ―

七日(月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illegible]」 李[illegible]林

☆曆☆
九月七日(月)
舊丙申七月大(廿一日)
壬辰·水·畢·成
●保護第五十七日(?)[illegible]
●陰曆二十三日(舊初七日)
●白露九月八日(舊廿二日)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速成獨語講座 (廿一) 登張信一郎
◇同一〇時三〇分(大) 家庭講座 大久保直穆(?)
◇同〇時五分(東) 講談 小金井蘆洲
◇同六時(大) 日本史 小笠原道生
◇同六時二五分(東) 青年時間 大阪國史劇研究會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坂本俊篤
◇同八時 吾澤 清元 吾澤俊篤
◇同八時一〇分(舊) 清元 清元梅美代子外
◇同八時二〇分(東) 三曲 川瀬里子外
◇同八時五〇分(東) 라듸오·드라마 「[illegible]」 古川綠波一座

◇同九時 古談 〃殺獄의明斷〃 申淸㕡
指揮 末岡克馬
高橋맨돌린·앙상블

◇同八三〇 맨돌린合奏 一、小品―여름에서―…高橋切作曲 二、바람에 꼿에 잠자리에 三、荒城의달…瀧廉太郎作曲 四、宵待草 多忠亮作曲 五、小夜曲…井上 繁隆作曲

◇同八〇〇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二、併唱 (가)短歌 大丈夫 (나)唱劇調 春香歌 金晉燮 鼓手 池龍九 李素香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運命과迷信〃 金德文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外寶演兒童多數

◇同六時 노래공부 (二) ―京城그라운드로부터―
一、海邊의少女…金泰午謠 玄雲曲 二、메밀꼿…朴世永謠 玄雲曲

八日(火曜)

◇同一時 野球試合實況 〃全朝鮮野球爭霸戰〃 ―京城그라운드로부터―
◇午後零時 五分 楚漢歌外 一 楚漢歌 二、孔明歌 三、寧邊歌 四、자진배다라기 五、긴난봉가 六、자진난봉가 文松鵑 全光泰
◇同九時 (大)뮤-직·칼드라마 文樂座에서中繼 人形淨瑠璃 作·編曲·指揮 大澤壽人
◇同七時三〇分(大) 講演
◇同六時二五分(京) 童話 江馬務
◇同六時 講演 淸島亮策 小金井蘆洲
◇午後〇時〇五分(東) 講談 英語 H·비아·예드만 郞四郞
◇午前六時三〇分(東) 英語會話講座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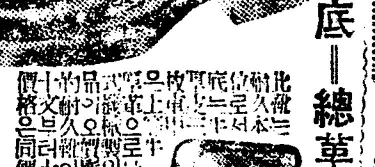
◇同九時 歌詞 一、白鷗詞 二、黃鷄詞 文明仙 金蘭球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洞里앞수양버들 二、꼭가튼우리青春 三、浮世草 四、相思草 五、人情 六、故鄕의바다를차저 七、靑鳥야웨우나 伴奏D·K管絃團 金玉
◇同八時 새타령外 一、新念佛 二、새타령 三、자진육자배기 四、興打鈴 鄭[illegible] 金柳色
◇同七時三〇分 講演 「[illegible]의美點과弊害」 普成高普 黃義敦
◇同六時三〇分 [illegible] 朝鮮日報 徐椿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經典解說 外寶演兒童多數
◇同六時 노래공부(二) ―京城그라운드로부터― 一、海邊의少女…金泰午謠 玄雲作曲 二、메밀꼿…朴世永謠
◇同一〇時 野球試合實況 「全朝鮮野球爭霸戰」

絕對全責任付、不合返金換品自由
大產―大阪―市價의半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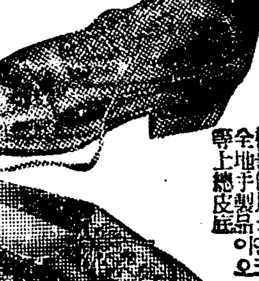
定價 一圓의萬年筆五萬本進呈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青年訓練總革靴◇
耐久 絕對 二個年以上

鬼三枚底―總革學生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 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總革 フレンチ型

レフチン型 編上靴 四圓二十錢

本品은絕對로機械를使用치안코全部手製品이요上等總皮底
鬼エナメル付一足 三十錢高

レフ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革靴大爆發的大景品付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鋲型靴 四圓五十錢

中學生專用指定革靴
高級職工의手製品으로原料등은모다最良品을特選한것인오로一足十文半까지同價
深型靴 五圓五十錢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生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化學의精華人功의妙) 最新發明 一金二圓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電話東五二二四(振替名古屋一七六)

平南道內旱害慘酷

收穫全無七千町步

七割以上減收도三千餘町步

今後救濟對策이問題

【平壤】 전고미증유의금번한재는 평남전토의농작물을 여지업시말러노코마럿 평남도내의농민의불안상태는 실로절정에달해잇다함은 루보한바 잇섯거니와 최근도간부들이 한재지대를시찰한결과는 지금까지의예상보다는훨신심한바잇서 실로재상을 참을마지안흘수업는터인데한해는 대동(大同)순천(順川)중화(中和) 룡강(龍岡)、강서(江西)、평원(平原)、안주(安州)등 칠개군에벌녀어저서 수확전무의 전멸면적은 칠천삼백오십오정보 칠할이상감수면적은 이천오백이십구정보 오할이상감수면적은 오천육백사십륙정보 삼할이상감수면적은 구천일백오십구정보로서 그피해면적의막대함에는 재경사경할 정도이어서 응급대책의강구가필요하며 더욱이 금추의식량문제부터가 극히곤난한상태이어서 일반의구제의손길이 펴지기를고대하고잇다

그런데 이상의 피해수자는전부가 벼농사에관한것뿐이며 이밧게 전곡의피해도 적지안흔상태이므로 프로농민들의 우울은 파연큰바잇다

더욱이 설혹가상으로 비료(肥料)대금의지불 소작료문제 기타의농채(農債)문제등 농촌에는 갈수록 첩첩산인 난관과난문제가 수어서가로막혀잇는 터이다

이제 각군별로 피해면적을소개해보면 다음과갓다

◇부분면적(農務課調査) 町步

郡名	全滅	七割以上	五割以上	三割以下
大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順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龍岡	一、七六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原	[illegible]	一、三〇〇	一、〇三一	[illegible]
安州	一、三六六	[illegible]	[illegible]	一、三二一
計	七、三五五	二、五二九	五、六四六	九、一五九

水組貯水量不足

明年農事도憂慮

水組施設缺陷에基因?

【平壤】 상남지방에서는 참담한 수해로 수천인민의 사상이잇섯고 가옥、전토의 류실된면적이 실로 그수자를 헤이기곤난한상태이나 이와정반대로 평남일대에는 아직도 한발로번민을계속하고잇는 현상이니 실로조물주의 태도도 공평하다고할수업다 평남농무과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관내십일개수리조합의 저수지의 저수량(貯水量)은 아직도 실로 부족한바잇서 이대로경과한다면 명년에도 금년만못하지 안흔 대한발을 면키어렵다하여 극도로불안을 늣기고잇는상태이다 그런데 구、십월의 다량의 강우가 업는한 저수지에 수량이 증가될 희망이업고 저수지에 만수가되도록 강우가잇다면 전곡의큰존해를 면키어려워 금후의일괴를 주시케되며 엇잿든 수리조합시설에 큰결함이잇다는것을 보이할수업는터이라한다

道內稻作被害만

六、七百萬圓巨額

【平壤】 수십년이래 처음보는금춘의 대한발은 평남전폭에여지업는 손해를던지고 말엇스니도작상황(稻作狀況)은 일만오천정보의 칠할이상 감수내지수확전무의황폐지로 만드러 농촌의우려는 극도에 달하여 인심도퍽공황한상태이다

농무과 조사에 의하면도의농작물 피해액은 일정보에대하여최소한도 삼백원으로따지어 벼농사의 피해만도오백만원을 나리지안는다하며 여기에다 그대로썩어버린 비료대금과 기타의비용까지 가산할때에는 실로 륙、칠백만원에 달할터이어서 금후의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한다

西朝鮮一帶에

爭議爆發念慮

【平壤】 서조선지방의 금년도농작물중에서 벼농사는 아조말못되여 수리조합지대에서는 조합비감면문제보상문제기타로 벌서부터 도처에서 말성이되고잇고 수확을마치고는 가장극렬화할것으로 상상된다 더욱이 지주대소작인사이에서 일어날 소작료의 감면문제로 항쟁이격화될것은 불을보기보다 밝은사실이므로 당국에서는 대책강구에 벌서부터 머리를알코잇다

新昌市內電話

三日부터通話

【新昌】 약진도상에잇는 함남신창항(咸南新昌港)은 소화칠년도이래 해산업계는 급템보로 진보하야 내외에 그일홈이 노파간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로서 각종소공업자들은 활발한신생로를어더 착착 광대한 대범위를 세워 사업과관을 일층확대하야 마치 상공업지의 도시회의 감을주더바 원래지리적으로 불편한위치에서 자연히 교통불편을늣기게되여 사업경영유지상 일대지장을 바더왓는바 금춘이래로 현안중의 하나인 전화가설 문제가 최근에 이르러 관계당국자의 적극적 방침과전반적원조및 일반의 열렬한활동으로 겨우구체적으로 매진하게되여 전지평합조소부터 전주수립공사를 진행중이든바 지금공사일체를 완료하야 삼일부터통화를 개시하게되엿다

普校學級增設에

五百圓을喜捨

尹坪吉女史壯擧

【固城】 모집아동 일백이십명에지원아동오백여명을 초과하는고성보통학교는 학급증설이 절급문제일것이다 금년도부터 이학급증설을 목적하고 동교학부형회에서는 작년사월부터 학급증설괴성회를 조직하고 적극적활동을하여왓스나 목적관철을하지못하고 소화십이년도부터 이학급증설전제조건으로 강습과(講習科)인가를어더 금춘 일학긔부터 사십명아동을 별도로 모집하여교수하게되엇스며 긔부금모집에활동중인데 고성군고성면덕선리(固城郡固城面德仙里)에 거주하는 윤평길(尹坪吉)(七十)녀사는이소식을듯고 자진하여 일금오백원을 학급증설비로 희사하엿다는데 일반사회에서는 윤녀사의 장거에대하야 칭송함을마지아니한다고한다

拳銃가진土兵一團

同胞商店을襲擊

安東縣下二道隈子서

【安東縣】 지난삼십일 오전일시사십분경 안동현 제삼구낭낭촌이도외자(安東縣第三區娘娘村二道隈子) 신의상회지점 (信義商會支店) 에권총과 철봉과 곤봉을가진토병십명이 침입하여 잠자는 의주군 광성면 성외동 (義州郡光城面城外洞) 사는박광철(朴光哲)(三一)과 리지만 (李枝萬)(二〇) 최길석(崔吉石)(二七)박원록(朴源祿)(三三)등 다섯명에게 돈을내라고 난타하여 중상을입힌후 현금사십구원십일전을 강탈도주하엿다는데이급보를듣은안동서삼도랑두(三道浪頭)파출소원오명은출동하야조사중인데아직까지범인은한명도체포치못하엿다한다

罹災民五十餘名

密航中途檢擧

【釜山】 금번 수해로 말미암아 이땅에 살수업서 정든고향을 등지고 일본내지로 밀항을 하려가고저 하엿스나 그도 길이 업서 밀항을하라다가 오십여명이 일제히 검거되여 결국 류치장신세를 지고마러다는 사실이 잇다 지난 일 오전두시경에 부산부외 다대포(多大浦)해안에서 밀항선이 출항한다는 급보를 듯은 부산경찰서에서는 형사대가 자동차를 모라 현장에 급행하야 밀항자로 변장을하고 밀항선을 타고 동해안에서 이마일 가량되는 지점에서 선장 하야총조(河野總助)(三〇)에게 부산항으로 진행하도록 명령하는동시 로커인 부산영주정(瀛州町) 리문달(李文達)(三七)외 사명을 검거하고 부산항 남빈방파제(南濱波堤)부근에 당하얏슬 때에 선장 하야총조는 경관의 감시를 피하야 바다에 뛰여드러가 도주를하얏스나 곳 발견하야 그대로 입항(入港)하야 전긔 밀항자로-카를 엄중취조한결과 그들은 수일전부터김해 량산 동래등지의 수해지에가서 리재민들을 감언리설로 속이여서 한사람에게 오원내지 십원식의 수수료를 밧고 그와가티 밀항식히려다 검거된것이라한다

倭館邑罹災民에

二次慰問品配給

本報倭館支局서活動

【倭館】 경북의관지방에는 가옥피해로인한 약확천명의 리재민을내여 감창고나 기타의비칩에 수용하여 기한과전염병에 불안을 늣기고잇는차에 본보에서솔선하여 위문품을보내여서 제일차는 의복을배부하고 이차는맥(麥)류등 배부하엿는데 배부시에는 칠곡(漆谷)군청의 열렬한동정과원조를바다서 수백호를사삿치 가정방문하엿다 그리고 위문품을바든 재민들은 다만감격의 눈물을 뿌리고잇섯다한다

扁桃腺手術途中에

二八處女가急死

過失醫師警察이取調

【新義州】 선의의정제로 일홈이잇는 선천읍천정에서 일홈높흔 미동병원의 의주와 선천보성녀학교 (宣川保聖女學校)의 이학년 안영순(安榮淳)이라는 열아홉살의 꽃가리 아름답든 처녀 (新義州若竹町一三安秉翰氏長女)는 한창 피어오르든 열아홉살을 일기로 지난달 이십칠일오후다섯시 선천미동병원(美東病院)에서 비명횡사를하얏다 선악으로 일홈이 세상에 알리어젓든만콤 그의죽엄을 액기는 사람이 만흔동시에 그죽엄의원인을 못게되자 선천미동병원의 큰과실이 나타나게되얏다

즉 안영순은 학교개학일자도 불원하얏슴으로 죽든날아츰차로 귀집인 신의주약죽정에서 원긔왕성하야 종달새가티 뛰며 차에올나 선천에 나렷든데 일즉 편도선(扁桃線)이 잇다함으로 그것을 곳치려 미동병원으로 갓다한다 의사는 맛츰 낫잠을 자고잇든 간호부를 깨워가지고 편도선수술을 하기위하야 마취약 주사를하든중 주사도중에 사망하고말엇다한다

이소문이 선천시내에 알리게되자 선천경찰서에서는 즉시그의사를 호출하야 취조한 결과마취약으로'고카인'을 극량의십오배나 주사하얏든 사실이 발각되여 과실치사로 취조하는일방 신의주검사국에 사유를보고하야 시체를 해부하야 지난일기로 되얏다한다

안영순의 부친 신의주제일교회의장로 안병한씨는 그딸의횡사를듯고 거의실신하다십히되얏는데 전긔미동병원에서는 위로의인사도업시 태도가 극히불친절하다하야 극도로분개하얏는데 미동병원에서 생아해를 주엿노코도 태도가태연하다는것은실로 언어도단입니다 사람을 돈에다 비할수는 업는일이나나는 중문하야 법적으로라도위자료를청구하겟습니다 운운(사진은 불의횡사한처녀 안영순)

地方人事

▲李仁錫氏(龍川郡外下面長)新任人事次本報南市支局來訪
▲鄭瑞鳳氏(龍川郡楊下面長)新任人事次本報楊市支局來訪
▲尹灼老氏(周德面長)新任人事次本報忠州支局來訪
▲石田幸治氏(前淮陽警察署長)大田署榮轉人事次本社牙山支局來訪

載寧 讀者慰安野談大會

▲日時 九月七日午後八時半
▲場所 又昌旅館後園
◇演士 申鼎言 先生
◇主催 朝鮮日報社載寧支局

井邑 水災救濟演劇大會

△時日 九月八日부터三日間
△場所 秋山劇場
◇主催 朝鮮日報井邑支局
◇後援 市內各商店

赤誠의金品還至

死線의同胞爲해서 涙의同情金寄托

分錢과古衣를모아가지고

元山에救濟熱澎湃

【元山】 ?두차례나 습격한 삼남지방과 강원도지방의 대홍수재는 전고미문의극렬적인 오천여명의 사상자를내여놋코 일억원의재산을 오유(烏有)에 돌아가게하얏슬뿐아니라 지금수십만에갓가운 생령을 긔한의구렁에 몰아너어 인생의 최비극을 지게하얏슴은 매일신문지가 보도하는바어니와 이사선에 직면한 리재민은 하로밤사이에 부모 처자 지우와 정든집을일코 비통에 잠거잇슬뿐아니라 잠잘집과 입을옷과 한주먹밥이업서서 풍찬노숙(風餐露宿)으로 지나며 동포 형제의 따뜻한동정을 바래여마지안코 잇다 이 참상을 동정하는 구제의 소리가 조선각지에서 울어나오는이때 향토원산에서도 우리의리재민을 우리가 구제하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소리가 노파가고잇서 본사원산지국에는 어린생도 가정부인 상점원등을할것업시 각계각층의인사들로부터 인류애에빗나는 동정금품을 가저오는분이날이갈사록 증가되여가고잇는데 지난 삼일에도 다음과가티 들어왓다。

▲五圓 元山新興府養會
▲卅圓五十錢 信興商店店員船員一同
▲十七圓 元山第二公普生一同
▲十六圓六十錢
▲衣類 一百四十四點 元山館石洞婦人會募集分

同胞愛의爆發

學校서同情金

【元山】 이번두차례나 삼남지방과 강원도일대를 사정업시 유린한 대홍수재는 근백만의생령으로하야금 사선에서 헤매게하야 그들은 지금의식주(衣食住)의안정을일코 이천만동포의 고귀한동정을 바라마지안코잇다함은 매일과가티 보도되는바이고 이에따라 각지에서 구호렬이평배되여가는이때 원산오만조선인은 리재민의 참상을 그대로보지못하겟다고 나도나도하고 동정금품을 본사원산지국으로 가저오다함은 루보하는바이거니와 지난오일에도 다음과가티 원산밋부근에잇는 학교어린동무들이 눈물겨운 동정금을 가저와서 접수하는 지국원으로 하여금 감격을 마지안케하엿다。

金七圓九錢也 德源郡縣面明星普學校兒童一同
金一圓五十錢也 元山德成學校兒童一同
金五圓十五錢、衣類十二點 元山春山幼稚園兒一同
衣類十二點 元山 任鼎俊 氏

義捐金品을募集

釜山府內各學校動員

【釜山】 부내각보통학교에서도지난이일에 동정금품을모집하엿는데 일만오천여벌의 의복을 모앗스며 그타 학용품등도 다수 모집된바 특히 부내 제이상교(第二商校)에서는 지난 이일과 삼일에는 학어머까지 후원하고 오백여명의 전학생이 총출동하야 행상대를 조직하야 호별방문으로 학용품과 회장품을팔아 그리익금을 구제금으로 긔부하고저 대활동을 개시하고잇스며 각녀학교에서도 가두에 진출하야 금품모집에 활약하고잇는테 일반의 만흔 동정을 긔대한다고한다。

九新工場職工의

갸륵한五十圓

【釜山】 부산부내 서면 부전리(西面富田里)에잇는 환신견포목공장(九新絹布工場)과 및 그공장의공 임백여명은 이번 수해동포의 참상에 뜨겁게 동정하야 『우리의 푼전이라도 주린형제를 살리자』는 적성으로 하로 불과 수십전의 입공중에서 용문의 돈을 모아 오십구원오십팔전을 지난 구월 삼일밤에 본보부산지국으로 가지고와서이재동포에게 전달하야 달라고의탁하엿다 본지국에서는 곳본사로탁송의 수속을 취하엿는데 부내각공장에 솔선한 미거라하야 칭송이 놉다한다

二百圓喜捨

金水坤氏赤誠

【新泰仁】 원적을 경성적선정백사십번지에두고 현주소를 래인에 둔 김수곤(金水坤)씨(六九)는 신문지상을통해서 갈수록 더심해저가는 리재민의 참상을 목도할듯이 그처참함을 연상하고 구제에도움을 주기위해서 현금 이백원을 삼남이재민구제금으로 지출하엿는데 백원은 전북전주리재민에게 분배하게 전북도청에 기탁하고백원은 구월오일오후오시에 본보신태인지국에 래방하야 이적은돈이나마 본사를통해서 리재민을 구헤달라고 기부하고갓다한다

九月一日부터開業
鮮滿綢緞株式會社
今回 鮮滿綢緞株式會社를創立하옵고 丁字屋綢緞部業務一切를 承繼하야 內容의充實은勿論 業務에 一層努力하겟삽기倍前愛護하아주시옵기仰望합니다
鮮滿綢緞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小林 源六
常務取締役 鈴木 文次郞
支配人 黃 淸河
京城府長谷川町六十五番地 (丁子屋舊綢緞部)

●頭痛에 ノーシン(노신)
效果는期待以上! 더구나 胃腸이안상하는理想的頭痛藥●

어린애들이 자다가感氣에걸리면
オイン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淋疾內服最新藥
糖衣 カバーカバ
錠(急性疼痛用) 球(慢性重症用)
南京大皮膚性病科醫長 向井利一先生 御指導
陸軍藥劑官 藤本清太郞先生 創製
醫學博士 岩切友志先生 醫學博士 木村嚴先生 實驗
醫學博士 遠藤金市先生 御推奬
服用後排尿時에 靑綠色의尿를보아 暫時이것을 尿道의洗滌에依하야 淋菌의旺盛한 發育을沮止하고、淸澄한尿를排泄하고 急速히自覺的他覺的疼痛을 鎭散식힌다。 ◇常用하여도胃腸障害가업다、
定價 一五〇錠球・一〇〇錠球・二〇〇錠球
朝鮮代理店 京城府本町 山岸天佑堂
製藥所 大阪 カバーカバ藥化學研究所

有名藥局藥店에잇다

浪花館
九月二日より九月八日まで 上映時間內表

お化花嫁	11.30	3.10	7.00
カイロノ戰慄	12.13	3.53	7.45
朝日オリムピツクニユース 輝く水上日本	1.23	5.03	8.55
素晴しき空想	1.40	5.20	9.14

……入場料金 40錢 60錢……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illegible]
九月六日부터晝夜二回 (晝一時、夜七時開演)
靑春座公演
悲劇 두女子의걷는길 全六幕
待望의名劇으로다시上演합니다。 … 여기에 풀수업는 千古의수수꺽기가 잇슴니다。
東洋文藝部 新劇 別莊과奇緣 一幕三場
次週上演名篇 林仙圭作『明暗有罪』三幕、崔獨鵑作『修道院』四幕

浪花劇場
九月六日부터三日間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土曜日曜祭日에는晝夜二回
◇파라마운트超特作全發聲日本字幕 G맨 … 主演
◇파라마운트超特作全發聲日本字幕 過去에서온男子 에릭사리데이 主演
PDL超特作全發聲版 現代劇 三色旗ビルデイング 監督 木村莊十二氏 主演 徳川夢聲氏
次週 — 邪神島 世界一의金髮美女

第一劇場
九月七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巨篇特別提供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RKO社超特作品全發聲日本版
豪華名篇 마음의傷處
時代劇篇 浪人太平記 監督 中川信夫氏 市川右太衛門氏 主演 阿部正三郞氏特別出演
拳鬪家大成功